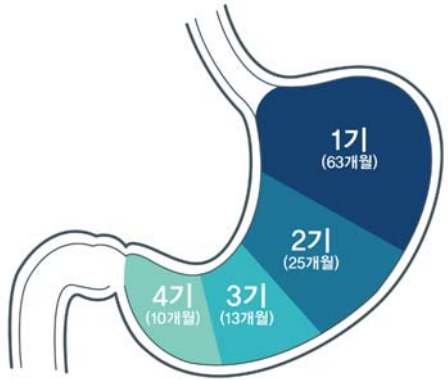


# “내시경 귀찮아”...방심하면 위암 조기 발견 늦어진다

### 매일 술 마시면 위암 3.5배 ↑...채소 등 섬유소 섭취 예방 싱겁게 먹고 40세 이상 2년에 1회 위 내시경 검사해야

## 위암

### 위암 생존기간



위는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소화 시작하는 내부장기로 J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겼다. 이곳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위암이다.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위 선암과 림프종, 위 점막하 종양, 평활 근육종 등으로 나뉜다. 그중 98%가 위암으로 부르는 위 선암이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만성위축성 위염과 나쁜 식습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전적 요인, 기타 환경적 요

인 등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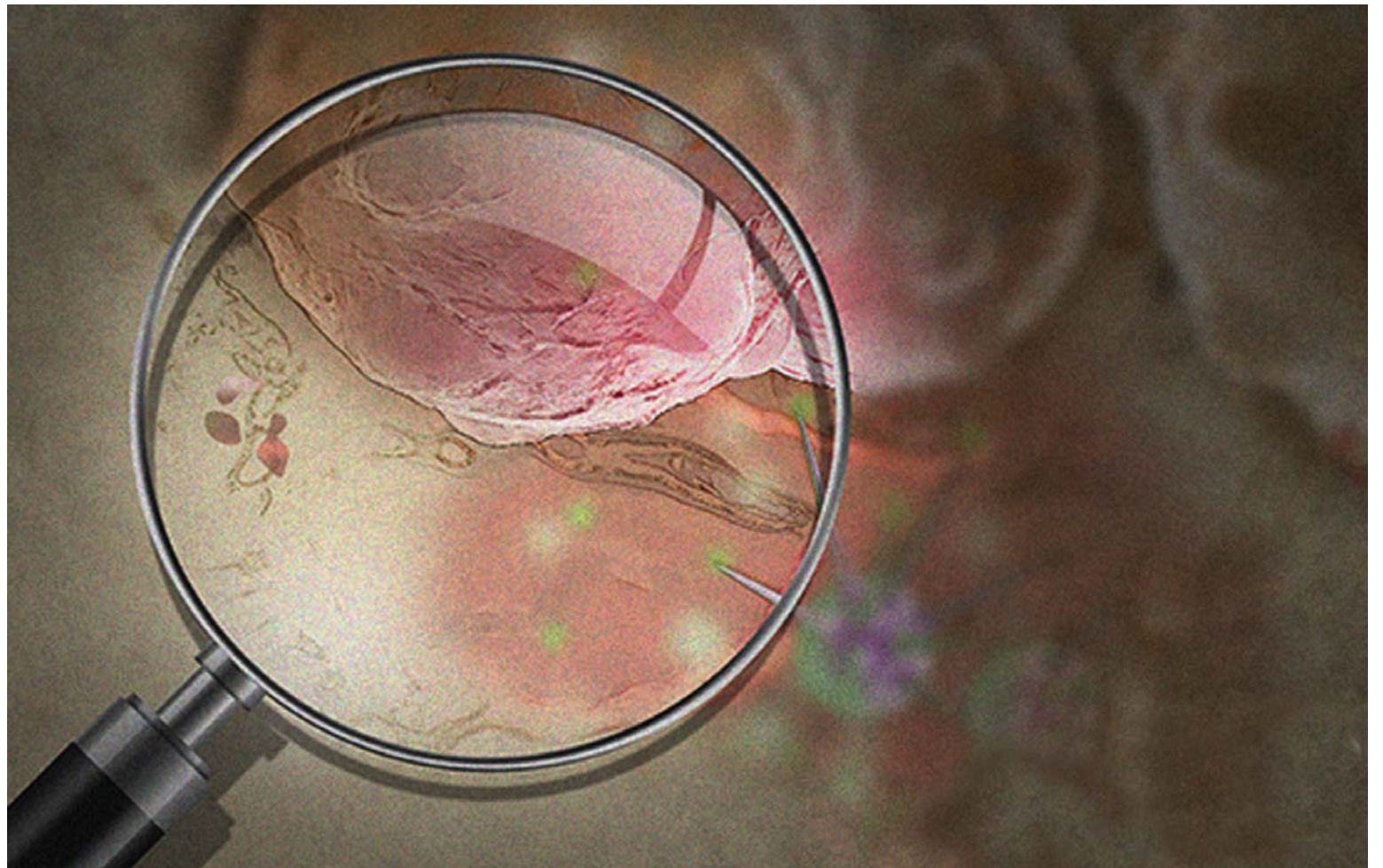
그중 만성위축성 위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이 질환이 위암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16~24년 정도다. 수술을 받고 위에서 분비하는 산성물질이 감소한 환자들은 몸속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년 후에는 위암에 걸릴 위험이 3~5배로 높아진다.

나쁜 식습관도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식품 처리제와 염장식품 등 질산염 화합물이 들어간 식품을 오랫동안 섭취하고 불에 태운 음식, 술과 담배를 즐기는 나쁜 식습관도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암이 발생할 위험이 3.5배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반면 채소와 과일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위암을 예방한다. 환경적 요인은 석면과 철가루 먼지, 공해, 전리방사선, 흡연, 산업폐기물, 방부제, 농약, 산업폐기물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다.

위암에 걸리면 배 위쪽에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낀다. 또 소화불량, 팽만감,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위 질환인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해도 나타날 수 있다. 위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이유다.

위암은 위 내시경과 조직검사, 위장관조영술을 통해 진단한다. 다만 1~4기까지 병기를 결정하는 검사는 컴퓨터단층촬영



(CT)과 복부 초음파, 초음파내시경이 필수다.

위암 수술은 근치적 또는 고식적 방식으로 구분한다. 근치적 수술은 완치를 목표로 암을 완전히 잘라내는 방식이며, 고식적 방식은 완치가 어려울 때 증상을 완화하거나 암이 자라는 것을 늦추는 수술법이다.

개복수술은 전통적인 수술법이며, 배 부

위를 절개해 암을 없애는 방법이다.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도구를 삽입해 암을 제거한다.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게 장점이다.

유문원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위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며 “이 수술은 위 기능을 보존하고 합병증이 적어 안전하

다”고 말했다. 이어 “암세포가 위장 점막에만 있으면 완치율이 95%에 달한다”며 “다만 초기에 발견하더라도 암 크기와 위치에 따라 내시경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위암을 예방하려면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며 “40세가 넘으면 적어도 2년에 1회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 “유산균음료 아닙니다”...암 키우는 ‘헬리코박터균’



위암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으로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을 미리 발견해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994년 헬리코박터균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헬리코박터균이 단독으로 위암을 일으키는지를 두고 일부 논

란이 있지만,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3~5배 정도 높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위암의 60%가량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에서 발생한다. 이들 3개국 40~50대 성인 10명 중 6명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에 생기는 경계성 종양인 ‘MALT 림프종’이 생길 수 있다.

‘MALT 림프종’을 암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MALT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부터 시작한다. 제균이 되면 림프종은 60~80% 수준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제균이 부족하면 방사선 치료가 이뤄진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단백질(Cag-A)이 위 점막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감염과 자가치유 과정을 반복하면서 위암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는 시기는 대개 10세

이전이다. 이 같은 염증 반응이 20~50년간 반복하다가 위암이 생긴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위암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만 연구팀은 4만8000명을 분석한 메타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제균 치료 효과가 높았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 26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위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은 그룹(177명)이 8.5%로 해당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91명) 14.3%보다 낮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들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질병은 조기진단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며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위암 60% 한국·중국·일본서 발생  
감염자, 비감염자보다 위암 위험 3~5배 높아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